



견·주관절 다이제스트

발행일자: 2016년 11월 26일 6호 / 발행인: 천상진 / 편집인: 김철홍, 박경진 / 발행처: 대한견·주관절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대한견·주관절학회 / 제작: 우리의학사



CONTENTS

- 03 _ ICSES 2016 학술대회를 마치며
- 05 _ 제13차 세계견·주관절 학술대회를 마치며
- 07 _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 09 _ 그리운 나의 플로리다 연수기
- 11 _ 2016년 Korea-Japan Travelling Fellowship을 다녀와서
- 13 _ 비급여 도수 치료의 최근 쟁점
- 15 _ Natural History of Rotator Cuff Tear
:A Retrospective Multicenter Analysis
- 17 _ 지난 학회 소식들
- 18 _ 회원동정
- 19 _ 2016년도 신입회원 명단

**독투스 에어커프 시스템은
부작용이 없는 가장 안전한
DVT예방 장치입니다.**



심부정맥혈전증 (DV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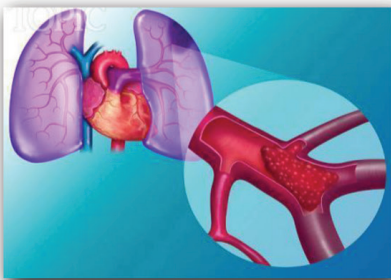
의학적 용어로 DVT (Deep Vein Thrombosis)라고 하며 대부분 종아리나 골반 등의 판막주변이나 외상을 받은 주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관절 수술 및 슬관절 수술에서 특히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막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혈관내의 혈전이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폐로 진행하게 되고 폐정맥 역시 막게 되어 폐색전증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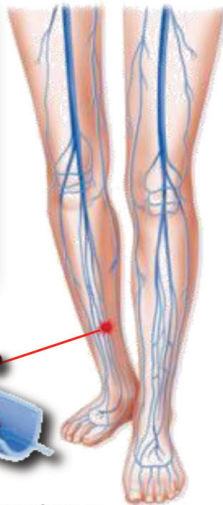
건강한 몸은 혈액응고계와 섬유소용해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균형이 혈액학적 장애, 과응고, 혈관벽손상 등으로 균형이 깨지게 되면 혈전 형성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혈전성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혈전성질환인 DVT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고 폐색전 발병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육안으로 판별이 힘들)

폐색전증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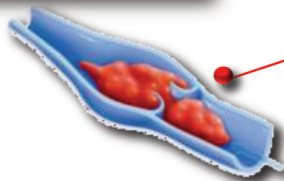
폐색전증은 (Pulmonary Embolism) 심부정맥 (원위부)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항응고요법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아 혈관을 따라 돌다가 폐의 혈액을 막게 되는 증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원위부에서 발생한 혈전의 20% 정도가 폐로 진행된다. 통상 수술 후 폐색전증 발생율은 40~50%에 이르고 특히 심부정맥혈전증 (DVT) 환자의 50~60%에서 폐색전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색전증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수술 후 적절한 항응고요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 (DVT) 치료요법

- 항응고제 : 헤파린, 와파린
- 압박스타킹 (Compression Stocking)
- **간헐적 공압 시스템 (IPC)**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 DVT 예방 (심부정맥혈전증)
- 수술 후 부종치료 및 감소

**! 항응고제 (Heparins, Warfarin)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ICSES 2016 학술대회를 마치며...



이 용 길
경희의대
ICSES 2016 학회장



벌써 반년이 흘러가네요.

2016년 5월,

그리도 따뜻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치러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The Lamp of the East: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 나린 등축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861년 5월 7일 인도에서 태어나 1913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가 3번째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 썼던 글입니다.

그는 간디에게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분입니다.

그 등불이 우리나라 제주에서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The ICSES 2016 logo는 2016년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 of에서 홍보했듯이, 2개의 심표가 있습니다. 작은 하나는 elbow를, 큰 하나는 shoulder joint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glenoid, humerus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나라 국기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을 써서 파란색은 trust와 responsibility을, 빨간색은 dignity를 뜻하지요.

매 3년마다 열리는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Shoulder and Elbow Surgery(ICSES)를 “New light upon your shoulder” 라는 주제아래 제주 중문에서 2016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및 유럽, 미국 등을 포함한 총 67개 나라 2,000여 명의 견주관절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노고로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10년 영국 Scotland의 Edinburgh에서 당시 세계견·주관절학회 유치위원장이셨던 이광진 교수님을 비롯한 전 학회 회원, 그리고 차기 학회장 선정 설명회 책임자 박진영 교수님 등 여러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성의로 드디어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기로 결정된 뒤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명회 전날 한 방에 모여 밤늦게까지 수정하고 점검하며 지냈던 시간, 투표 당일 멤버론과 동표가 되어 다시 재표결한 순간, 제주도 유치가 확정된 후 서로 부둥켜안고 신나하던 순간, 아직도 생생히 먼 추억속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6년간 대한건·주관절학회는 'International Board Shoulder and Elbow Surgeons' 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여러 선생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이번 '제13차 세계건·주관절학술대회'를 통해 어깨와 팔꿈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학술적인 성과들이 논의되고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계건·주관절학술대회'는 1980년 창립된 이래, 어깨 및 팔꿈치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New Light Upon Your Shoulder' 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각국에 있는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공유됨으로써 어깨 및 팔꿈치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학회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학회 일정이었지만, 우리나라 제주의 아름다운 초여름 풍경과 정취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견주관절 학회 회원 50명의 사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100여 명의 외국 부인들의 social activity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약 1,200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5%만 podium presentation 이 되고 32%가 poster로 발표되어 50% 미만의 채택률을 보여 상당히 수준 높은 학회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122명의 faculty members를 모시고 11개의 심포지움, 3개의 current concept review, 6개의 ICL, 5개의 live surgery를 구성하여 세계건·주관절 학회 회원들에게 멋진 토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우리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live surgery를 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학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세계 견주관절 학회가 열리길 염원하셨던 하늘에 계신 고하권일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회 기간 내내 한라산이 보일 정도로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welcome reception, Gala night 이 예정되어 있어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학회 이틀 전에는 제주도에 돌풍이 불어 비행기가 회항하고 결항되어 초긴장 상태였다가, 다시 학회가 끝나자마자 비바람이 불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회 기간은 그리도 조용하고 조용했습니다. 골프치기 전 비바람이 몰아치고 종일 비예보가 있어 비가 내릴까 노심초사 했지만, 아슬아슬 무사히 골프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들어오니 억수같이 비가 퍼붓기 시작할 때의 그 기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팀들은 한결같이 "자신감, 신뢰, 협력" 이 세 가지로 이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Closing Ceremony 때 우리 팀들을 "They were not ordinary person, they were not human, They were more than human,"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석자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참석자분들의 "better than best"라고 남겨 준 말을 들으면서 학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Closing 때 터져 나왔던 기립 박수는 이 학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 네온정형외과 원장이자, 전 건국대 교수 박진영 조직위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오주한 사무총장,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유재철 학술위원장,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전인호 학술위원장들이 이 학회를 빛나게 해 준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 세계건·주관절학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학회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학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내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16 International Congress on Shoulder and Elbow Surgery (ICES) Jeju 대회장을 맡았던 경희대학교 이용걸 드림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건 · 주관절학술대회(ICSES 2016)

제13차 세계건 · 주관절 학술대회를 마치며...

김은 정(PCO)

2013년 5월.

대한건 · 주관절학회에서 제13차 세계건 · 주관절학술대회(ICSES 2016) PCO 선정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망설임이 없었다. ACASA 2002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인연 다시 재연하고 싶었다. 제안서 제출하고, 2번의 PT 후 2013년 9월 “코엑스가 선정되었다”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감회는 새로웠다. 그렇게 3년간의 제13차 세계건 · 주관절학술대회 PCO 업무가 시작되었다.



2013년 11월. 사모님들과의 첫 만남

타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사모님을 뵈고 행사 준비를 해 본 적이 없었다. ICSES 2016은 달랐다. 2013년 11월 사교행사 및 관광 답사를 시작으로 2016년 4월 기념품 및 Refresh Kit까지 사모님들께서 하나하나 관여하여 사교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 사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인상적이었으며, 덕분에 성황리에 끝났다. 이로 인해 ICSES 2016 행사는 전체 1,710명 중에서 동반자 112명 참석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ICSES 2016 슬픔과 희망,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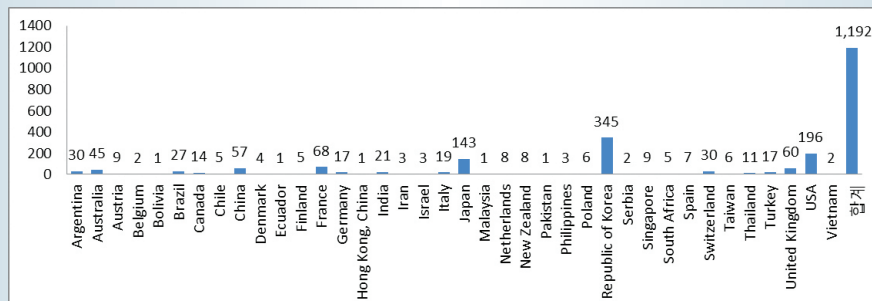
2015년 4월 Codman Lecture 연자이셨던 Stephen A. Copeland(영국) 교수님이 타계하시어 슬픔에 잠겼지만 W. Angus Wallace(영국) 교수님께서 채워주셨으며, Jen Copeland님께서 참석하시어 더욱 자리를 빛내주셨다. ICSES 2016 행사를 준비하면서 신뢰와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Stephen A. Copeland 교수님을 자꾸 상기시켜 Jen Copeland님께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2015년 7월 20일까지 초록제출 마감!

“의학 학술대회의 꽃 학술 운영” 초록은 얼마나 접수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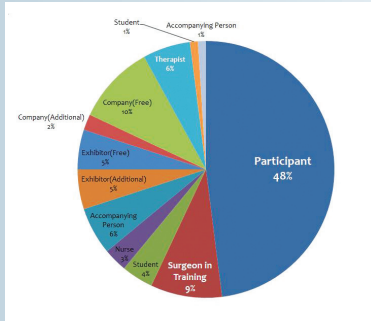
2015년 7월 20일, 결전의 날! 38개국, 총 1,192편 접수되었다. ICSES 2010 영국 학술대회 당시 1,024편 보다 168편이 더 접수가 되어 성공적으로 초록 접수를 마감하여 초록 연장에 대한 Back-up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KSES 회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분과학회에서 초록접수가 이렇게 많이 이뤄진 점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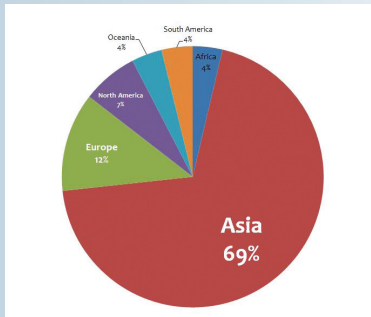
대륙별, 국가별, 소속기관별, Topic 현황을 정리 후 국내 9명, 국외 59명 총 68명의 심사위원님들의 2015년 8월 21일부터 ~ 10월 4일까지 초록 심사를 진행하였다. 국외 초록 심사위원님들의 비중이 커 어느 학회보다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결과 47% 수락률! Podium Presentation 24세션 178편, Poster Presentation 12세션 76편, Asian Perspective 6세션 44편의 구두발표와, 267편의 E-Poster 발표되었다.

새로운 시도!

Live Surgery, Current Concept Review (CCR), Poster Presentation, ICSES 2016 대회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았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평가한다. 그중 Poster Presentation은 가장 인상에 남는다. 전시장에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 결과 전시업체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었으며, 구두발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좋은 발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험을 타 학술대회에서도 활용을 하고자 한다.



카테고리별 현황



대륙별 현황

ICSES 2016 열공 참여 모드!!

148 Key Speakers!!

07:00~18:00까지의 짝 찬 학술 프로그램!!

5분 발표, 7분 발표, 10분 발표, 20분 발표, Break Time 조차 Poster Presentation이 진행되었다. 숨막히는 학술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가자들이 피곤해하지 않을까? 발표 시간이 길어져서 세션 운영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하지? Q&A 진행할 수 있을까? 사교행사 운영에 지장은 없을까? 온갖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났다.

행사 후 프로그램 구성은 신의 한 수였다고 들었다. 지루할 틈이 없도록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Voting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보통 학술대회를 참석하여 본인 발표하고, 원하는 강의 듣고, 관광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ICSES 2016 참가자들은 강의 참여도 및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대행사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전 등록 2,500명 목표!!! 최종 1,710명 등록 / 총 42개업체 94부스 신청

대한건 · 주관절학회(KSES) 회원은 2015년 12월 기준 958명이었다. KSES 회원님들께서 networ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가자 및 업체 유치를 도와주셔서, 금년 ICSES 2016는 국외 926명, 국내 784명 총 68개국 1,710명이 등록하였고 총 42개 업체에서 94부스를 신청하였다. 이는 역대 ICSES 대회 중 최고의 성과뿐 아니라 1993년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제19차 세계대회(SICOT 93 Seoul), 2010년 세계수부외과학회(IFSSH 2010), 제5차 세계소아정형외과 국제학술대회(IFPOS 2010 SEOUL) 이후로 한국에서 처음 열린 최대 규모의 세계학술대회이다.

PCO보다 더 빠른 업무를 진행하는 ICSES 2016 운영위원회!!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빠른 업무 진행과 LTE 급 회신을 주시는 오주한 사무총장님, 카톡과 보이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학술위원장님들은 우리 PCO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 5번의 전체 조직위원회 회의
- 5번의 사교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장소 답사
- 9번의 ICSET 2016 운영위원회 회의
- 10번의 학술위원회
- 25번의 운영위원회 회의
- 25번의 사무국 회의와 57번의 사무국 업무 보고

행사 막바지 4시간, 5시간씩 진행되는 릴레이 회의에서의 운영위원회 선생님의 열정, 실무위원회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은 정말 감사했다. 이런 사전 준비의 철저함은 성공적 대회 개최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코엑스 PCO 팀은 웃을 수 있었으며,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2016년 박진영 네온정형외과 Global Center for Shoulder, Elbow and Sports Medicine 전임의 류호동입니다. 건·주관절 다이제스트에 **박진영 교수님**과 저희 병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국대병원을 거쳐 건국대병원에서 20년간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다가 2014년 4월 큰 뜻을 가지고 개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개원이라는 큰 결심을 하시고 전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특히 스포츠의학을 최초로 개척해오신 만큼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개인병원도 믿음만한 진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못지않은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진료와 연구, 그리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네온정형외과 박진영 원장님의 일과

수술실에서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입원 환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바로 수술 준비가 시작 됩니다. 월, 화, 수, 목요일 오전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 주에 평균 15개 정도의 수술을 하십니다. 저희보다 최신 음악을 더 잘 아시는 교수님은 음악을 통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시며 수술 중 여러 가지 팁과 지식들을 자상하게 설명 해주십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며 서두르지 않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전임의들은 늘 감탄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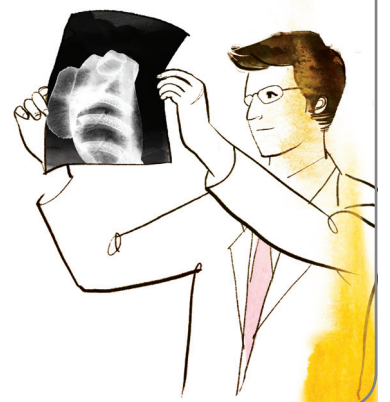
외래에서

수술이 끝나면 바로 오후 외래진료가 시작됩니다. 매일 평균 70명가량의 전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진료하십니다. 언제나 고개 숙여 인사하고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 왜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을 따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뛰어난 진단 기법과 우수한 치료 결과도 놀랍지만 환자를 대하는 진실된 마음은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CT나 MRI가 없지만 항상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시행하시면서, 환자의 답답한 마음을 빠르게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논문 미팅과 SES school이라는 모임이 진행됩니다. 전임의 입장에서는 가슴 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래 시작 전 가벼운 다과와 함께 진행 중인 논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지시를 하기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형식으로 전임의들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며, 늘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곤 합니다. SES school은 shoulder, elbow and sports medicine의 약자로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치료받은 환자분들과 운동선수들의 증례 토의를 기본으로 영상의학과 선생님의 영상판독과 교수님의 수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논문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꿈을 가져야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같이 바쁜 수술과 진료를 하시면서도 강의와 연구에 대한 열정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님께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며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도 계속 나아가기 위하여 네온정형외과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정서연 간호사 (수술방간호사)

두 간호사는 수술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원 특성상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어 수술 중 교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기도 전에 이미 기구들이 교수님 손 앞에 와 있을 정도입니다. 손발이 너무 잘 맞는 나머지, 수술실에서 대화가 사라지는 썰렁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수술들을 오전 중에, 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 간호사 (외래간호사)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 외래는 교수님의 자상함으로 인하여 진료가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현숙 간호사는 그런 와중에 4개의 진료실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외래를 진행하고 수술 스케줄을 조절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며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기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부의 수장으로써 자상하지만 때로는 엄격하게 관리하며, 진료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취재기

이번 취재는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를 탐방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가 컸다. 이전까지는 본 지면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의국 탐방만이 이루어져 왔는데, 대학병원의 시스템이나 환경과 매우 다를 것이 분명한 개원가에서 어떻게 어깨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마음이 컸다. 하물며,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업적을 이미 이루어 오신 박진영 교수님의 개원 병원이기에 더욱 큰 호기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였다. 이번 취재는 유연식 홍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김철홍, 박경진, 이용범, 임태강)께서 함께 해주셨다. 늦은 오후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마자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로비에 역시나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로비의 곳곳에 여러 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 및 기념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어, 스포츠 질환 치료에 있어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외래 진료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이제형 부원장님의 안내로, 병원 곳곳을 둘러 볼 수 있었는데, 외래 진료실, 입원실 및 수술실의 환경이 대학병원 등의 그것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놀랐다. 병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매우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으며, 연두색과 흰색을 바탕으로 통일성 있게 인테리어가 이루어진 효과로 생각되었다. 연두색은 교수님의 발표 슬라이드에서 항상 보아서 익숙한 색깔인데, 교수님께서 그 색을 어렵게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세심하게 신경 쓰셨구나 하는 느낌과, 교수님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3명의 전임의 선생님들로부터 병원 근무와 수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진료와 수술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교수님의 수술을 직접 참관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의국 탐방을 통해, 어깨 및 팔꿈치 환자들이 편하게 와서 치료받고 가실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교수님의 소박한 바람과, 특히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진료 및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가고 싶다는 교수님의 꿈은, 아마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인상 깊게 느끼게 되었다. 박진영 교수님과 네온 정형외과의 밝은 앞날을 더욱 기대해 본다.

그리운 나의 플로리다 연수기

김두섭

연세원주의대 정형외과



연수기 의뢰를 받고 즐거운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반추하게 해 주신 건·주관절 홍보 위원회에 감사 드립니다.

2013년 4월 1일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쇼생크 탈출과도 같았다. 많은 일과 업무들로부터의 탈출, 난 감히 쇼생크 탈출에 비하고 싶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어른신들의 역정을 뒤로하고... 큰 딸(재은)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재준)은 이제 돌이었다. 다행히 울지 않았다. 미국 연수도 처음이었지만 미국 가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미국에 대한 왤치 모를 거부감이 나에게에는 있었다. 물론 지금은 친미파이지만...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 바로 게인즈빌(Gainesville) 행 델타 항공을 타고 드디어 그리던 플로리다 도착.

집은 미리 인터넷으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직접 구해 두었으나 이동 수단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 전혀 준비 없이 시작한 연수 생활이었다. 게인즈빌엔 택시가 없단다. 시골이긴 하지만 택시가 없을 줄이야... 올해 방문 시에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였지만 그때 그도 없었다. 공항 내 렌트카를 빌려 드디어 집에 도착. 너무 배가 고파 집 (Asbury apt) 앞 한인 식당 갈릭 앤 진저(garlic and ginger)로 향했다. 친절하 주인... 나중에 나의 절친, 술친구가 되었다. 울여름도 가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었다.

차를 사고(난 애국자. 미국서도 현대차를 샀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생활 아이템 준비에 꼬박 2주가 걸린 듯하다. 서툰 영어로 힘든 기억이 난다.

도착 다음날 바로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 UF) 지도 교수님인 스캇 교수님(Scott A. Banks)을 방문하였다. 박사 과정을 MIT에서 수학한 엔지니어로서 로봇 전문가이다. 1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정형외과 의사와 슬관절 운동 분석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in vivo motion analysis을 하자는 제안에 joint trac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3D-2D shape matching technique 을 고안하였단다. 그때부터 정형외과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의사들과 일하는 것을 매우 즐기셨다. DJO, Zimmer 등 여러 medical company 들과 함께 연구를 하였고 많은 자문을 하고 있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걱정도 앞섰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교내 이메일 계정 등록, gator 1 card (일종의 교내 신분증, 게인즈빌에선 대중교통이 공짜다) 발급, 교내 구경을 본인 차로 시켜주었다. lab 식구들과의 첫 만남.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수많은 동양 출신 석사 박사 과정 연구원들이 있었고 오히려 백인들은 거의 없어서 신기할 정도였다. 첫날 정장을 입고 갔는데 그날이 플로리다서 정장을 입은 마지막 날이었다. 언제부터 출근할지 물어보니 개인 정비 및 여행을 하고 한 달 뒤 오란다. 친절하 교수님, 돌아가다 과속으로 경찰에 걸려 벌금 200불을 내긴 했지만.

한 달 뒤 드디어 출근. 연구실 정식 명칭은 Aerospace and engineering department 여서 우주선이 어디 있나 물어보았더니 그건 통합 명칭이고 이 빌딩은 engineering department 란다. 스캇 교수님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다. 연수를 가기 전 견관절 운동 분석을 카데바를 이용하여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는 in vivo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건·주관절 학회에 많은 교수님들이 카데바 연구 Lab 에 연수를 갔다 오신 상태여서 난 다른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었다. pubmed 논문 검색 중 knee 분야 운동 분석을 shape matching technique 으로 이미 150여 편의 sci 논문을 쓴 스캇 교수의 이름을 접했고 그날 바로 메일을 보냈다. 정확히 1주일 뒤 연락을 받았고 대답은 yes 였다. “본인의 사명은 본인의 연구 정보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 이라는 편지와 함께. 난 이 편지가 너무 좋았다. 본인의 사명이라니... 나중에 친해지고 난 뒤 들은 이야기지만 “너의 사명은 우리 lab의 정보를 한국에 펼치는 것” 이라고 하셔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한양대 이봉근 교수가 열심히 공부 중이다. 일단 미션 성공!

연수 가기 전 스캇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봤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강의 및 실습을 거의 6개월 하고 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컴맹인 내가 프로그래밍을, 그것도 영어로 배우게 된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다. Lab은 리틀 도쿄였다. 나랑 같이 있던 일본 친구들은 한 명은 hip surgeon(코지), 다른 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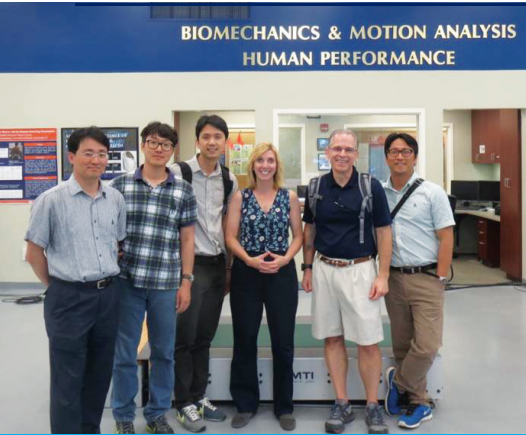
올 여름 게인즈빌 방문시 Prof. Banks (좌측)
Dr. Wright (우측) 과의 저녁 식사



Shands medical center 에서 Dr. Wright 과
수술뒤 함께



SWAP 미식 축구 경기장 플로리다 대학 경기.
UF 내 미식 축구 경기장이 있다.



2013년 친구를 방문시 랩 투어



2013년 크리스마스 랩 파티, 스캇 교수님 댁에서



2014년 가을 마지막 파티, 우리 가족을 위한 송별회

은 hip implant 개발 엔지니어였다. 코지가 일본 의사 research fellow 중 30번째라 하였다. 일본에서 유명한 Sugaya 선생님이 우리 Lab 출신이라 하였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1번 fellow 다. 그들은 matching technique 일본어 버전이 있어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부러워 한국어 버전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강의 듣고 실습한 뒤 내가 느낀 점,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정리하였다. 연수 마지막 3개월 동안 꼬박 정리 완성하였다. 완성 후 교수님께 보여 주었더니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지만 인터넷 공개는 곤란하다고 하셨다. 물론 lab 이 가지고 있는 standalone program 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도 받았다. 처음엔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 한국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고 꼭 Korean shoulder and elbow society 와 교류를 하고 싶어 하셨다. 재작년 ISTA 학회 chairman 이셨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안와 서운해 하시기도 했다.

1년이 지나고 연구가 순조롭게 되자 알코올 냄새가 그리워졌다. 스캇 교수가 DJO consultant 로 일하고 있어 Dr. Frankle 을 소개해 주어 그의 카데바 연구실인 fore 에 가볼 수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가 천재라 하였다. 함께 일하는 분들은 거의 생 고생한다는 말과 함께 그의 제자 Nevy (Jses 단골 손님)도 그때 볼 수 있었는데 매우 열정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었다. 또한 Shands medical center 에 Dr. Wright 도 소개 해주셔서 6개월간 인공 관절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이를 수술하는데 하루 6 케이스, 정말 놀라운 것은 모두 shouler arthroplasty 라는 점. Dr. Wright 는 작년에 견관절 인공 관절 수술을 1,140 케이스를 했다 하니 놀라웠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가 Exactech implant 디자이너였고 굉장히 친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Exactech shoulder implant 수입 전이라 한국에 수입되면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난다. 얼마 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원 없이 여행을 다녔다. 올랜드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캐네디 우주 센터를 모두 annual pass 로 다녔다. 본전을 뺀 다음에 거의 한 달에 3-4번은 간 것 같다. 플로리다 75번 국도를 항상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다녀서 게인즈빌에서 마이애미 까지 382 마일, 5시간 드라이브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부모님과 함께한 미 동부 2주 여행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등), 서부 2주 (LA, 라스베거스, 세도나, 그랜드 캐년, 데스 밸리, 엘로우 스톤, 샌프란시스코 AT & T 파크 등등), 멕시코 칸쿤 (재은이는 신혼 여행으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5번의 플로리다 일주 (친구 가족과 2번, 학회 친구 1번, 부모님과 1번, 식구 끼리 1번... 나중에는 항상 똑같은 코스로 가서 여행 안내원이 된 듯했다). 여행의 백미는 역시 친구들과의 질주... 이 두형 교수, 이봉근 교수가 연수 기간에 놀러와 함께 플로리다 일주(Key west)를 하였고 함께 즐긴 악어 꼬리 고기는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물론 맛은 치킨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연수 중반기 윤여승 교수님께서 집으로 방문하셨다. 공식 방문 끝내시고 들르신거다. 게인즈빌 방문 학자들 모두 초대,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멍청한 자신의 제자(김두섭)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금일봉... 감동의 순간... 남다른 제자 사랑...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질문을 던지지만 쉽지 않다.

난 행복한 사나이. 미국에도 나의 멘토가 있다. 스캇 교수님. 가끔 나에게 이야기 하신다. 왜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지 물어 보신다. 얼마전 한국 초청을 요청하니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느 형식의 세미나라도 기꺼이 오신다고 하신다. "스캇 교수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항상 난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진심으로...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한 항상 따뜻한 조언 및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교수들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있다.

재은이는 김볼 와이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취미 활동, 특히 승마를 배웠다. 강습비가 한 번에 30불로 저렴한 편이였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식구들과 여행도 자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매우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선 한 달에 2-3번 함께 저녁 식사를 할까 말까 했는데 거기선 거의 매일 함께 지지고 볶고... 특히 둘째 꼬마하고 매일 샤워, 일과 후 수영장 (아파트 내 수영장이 거의 예술이다. 밤이면 조명에 야자수가 춤을 추고 더운 플로리다 날씨를 식히는 알싸한 바람이 분다)에서 놀았다. 재준(둘째 아들)이는 아빠를 가장 사랑한다.

벌써 다시 연수가 가고 싶어진다. 친하게 지낸 방문 학자들, lab 동료들, 스캇 교수님. 그의 아내 앤 (여러 번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할로윈 데이엔 자신의 마귀 할멈 드레스를 재은이에게 선물해 주셨다.)

모두 보고 싶고 사랑한다.

2016년 11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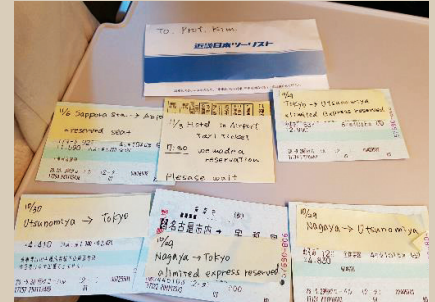
김 두 섭

2016년 Korea-Japan Travelling Fellowship을 다녀와서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김유진

이화대 신상진 교수와 함께 11월 20일부터 히로시마에서의 제43회 Japan Shoulder Society (이하 JSS)학회 참가를 시작으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우츠노미야, 도쿄, 치바, 카나가와, 삿포로, 센다이에 이르는 10개 도시, 12개 병원을 도는 3주간의 일정이었다. (표)

공항부터 국민급의 극진한 예우를 하는 것에 크게 감동받았으며, 한 일정 한 일정마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항공편 및 신칸센 열차 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배려하여 메모하여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병원	초청교수	진단 및 모임	수술 및 참여	포지션	특징
1	Fukuoka Univ.	Izaki Teruaki	Instability Rotator cuff tear	Arthroscope	Beach chair	
2	Fukuoka Univ. Tsukishi	Shibata Yozo	Instability Rotator cuff tear	Open Latarjet Arthroscope	Beach chair	
3	Osaka National Univ	Sugamoto Kazuomi	3D simulation lab			
4	Osaka Medical College	Mihata Teruhisa	Cuff tear arthropathy	Superior cuff reconstruction	Lateral	Fascia lata graft
5	Nagoya Univ	Goto Hideyuki	Calcific tendinitis	Arthroscope	Lateral	수술중 초음파
6	Nagoya Sports clinic	Sugimoto Katsumasa	Clinic for sports player	Ultrasonogram		현란한 초음파 실력
7	Dokkyo Univ	Tamai Kazuya	Dokkyo shoulder conference			
8	Doai hospital	Nakagawa Teruhiko	Rotator cuff tear Instability	Arthroscope	Lateral	
9	Funabashi Orthopedic center	Sugaya Takahashi	OA Instability Cuff tear arthropathy Rotator cuff tear Elbow OCD	Total shouler Bankart Remplissage Reverse total Arthroscope	Beach chair	
10	Showa Univ. Fuzigaoka	Nishinaka Naoya	Rotator cuff disease Complex fracture	Arthroscope Revisional Reverse total shoulder	Beach chair	자이언트 니들
11	Hokkaido Univ	Funakoshi Tadanao	Rotator cuff tear	Arthro. transosseous suture	Beach chair	
12	Tohoku Univ.	Itoi Eiji Yamamoto Nobuyuki	Tohoku shouler meeting			감동적인 farewell ceremony



먼저 과거 JSS참가시의 느낌과 다른 점은 매우 국제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견·주관절학회의 국제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영어 세션이 늘고, 일본어로 발표하는 국내 세션에서도 슬라이드는 많은 선생들이 영어로 표기하고 있었다. 수술에 있어 모든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느끼듯이 수술양이 우리에게 비하여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다는 Funakoshi center도 우리나라의 활동적인 대학병원 교수보다 많지 않으며, 수술 술기 또한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는 2014년에서야 일본 식약청 허가가 나와 걸음마 수준이었으며, 많은 교수들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모든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팁이 있으며, 배울 것이 없는 수술은 없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Mihata선생의 Tensor fascia lata를 이용한 SCR는 학회의 논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생역학 연구를 동반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우리가 참관하는 날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에서 참관하러 오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나 또한 Reverse할 수 없는 젊은 cuff tear arthropathy 환자에게 하나의 적응증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으며, 적극 시도해볼 생각이다. 나고야의 Sugimoto선생은 월등한 초음파 실력으로 빠른 시간에 Bankart, SLAP lesion의 Dynamic study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매우 훌륭한 운동선수 전용 재활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술 자세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teral, beach chair로 다양하였으며, 마취를 직접 하는 의사도 있었다. 관절경으로 자체 주문한 커다란 바늘을 사용하여 transosseous surutre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Portal은 대부분 4개 이상 사용하는데 cannula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거나 working portal 한 개 정도에만 썼다. 흥미로운 것은 Rotator cuff repair시 Medial row 타이틀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며, 모두들 type 2 retear 때문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수술 후 환자들이 국민 의료보험이 청구되는 견관절 전문 물리치료사에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활치료 수가와 시설을 생각하면, 개선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후쿠오카의 더운 날씨를 거쳐 3주 후 삿포로에 도착하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는 곳 마다 직접 교수나 교수급의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 마중하여 주었으며, 열차 좌석번호까지 미리 조사하여 내리는 열차 바로 앞에서 계셔서 감동받았으며, 각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대접하였고 유명한 관광지까지 직접 안내하여 주셨다. 앞 도시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신경 써서 메뉴가 연속으로 겹치지 않게 하고, 그 지역 의사들을 초청하여 거의 매일 모임과 회식이 있어 즐거웠으나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로 하였다. 순회 동안 6번의 강의 발표를 하였는데, 신상진 교수는 화려한 언변과 많은 경험, 좋은 영어실력으로 그곳의 젊은 의사들뿐만 아니고 초대 교수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나는 오사카 유학을 경험으로 부족한 일본어로 강의하여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마지막 일정은 Itoi 교수 주관의 감동적인 farewell party가 있었으며, 떠나는 날 Yamamoto선생이 센다이 공항 근처의 대참사 흔적을 보여 주어 숙연해졌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빠른 재건을 기도하였다.

끝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허락해준 대한견·주관절학회와 늘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술 술기의 one-point lesson까지 해준 신상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비급여 도수 치료의 최근 쟁점

한양의대 이봉근

+ 도수치료의 정의 및 적응증

도수치료는 기능적 장애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시술자의 손을 사용하여 시행되는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불균형이 있는 척추 및 관절의 강직, 근육의 통증 등에 시행되며, 통증 감소, 교정 가능한 부정열 교정, 근육의 불균형 및 운동 범위가 증가가 치료 목적에 해당된다. 도수치료의 적응증으로 후경부 통증 및 만성 두통, 사경, 턱관절 질환, 강직과 통증이 있는 관절, 만성 요통, 척추 측만증의 일부, 골반불균형, 근막동통 증후군, 자율신경 질환, 수술 후 회복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 도수 치료의 최근 실태

도수치료는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 내용과 금액만을 고시하면 시행할 수 있어 행정적 규제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은 의료계로서는 편리한 점이지만, 그 비용과 시행 방법이 병원마다 상이하고 권유되는 횟수도 다양하다. 또한 질환 또는 증상에 따른 치료 횟수나 방법을 고지한 가이드 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실비보험이 일반화되면서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가 실비보험에 적용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도수치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고 그 처방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치료 빈도나 횟수 그리고 적응증에 관한 이슈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증가하였고 이 때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을 뿐 본인들이 결정한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다. 실비보험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지만 의사의 권유와 처방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분쟁으로부터 의사들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고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 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지급 불인정이 되었다. 이 판정은 일종의 판례가 되어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고시하고 실비보험의 확산을 막는 추세이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명시하고 있다. 진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판단과 처방은 보장되어야 하며 침해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진료권은 의료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용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보험사에 의해 남용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어 소신 진료를 하는 많은 의사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며 일부 병원들의 근거 없는 진료 행위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일부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및 도수치료로 천만원 이상을 청구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 보험사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별대응팀을 조직하여 비급여 치료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수치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의료 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 보험사의 입장

보험사에서는 이미 기지급 된 도수치료 금액을 환수할 수 없으나, 자문 또는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도수치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난 판례는 보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법률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추후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향후 치료 적정성에 관한 의료 심사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예가 있다.



✚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도수치료의 처방시 주의할 사항

1.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근거의 제시

판례에서 보았듯이 정확한 진단명이 기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의무 기록이 부실하거나 정상 소견의 영상 검사 후 도수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 질환에 대한 근거 없이 처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질병코드도 기재해야 하며 질병코드와 기록이 상이할 경우 근거 부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도수치료의 원래 취지는 시술자가 통증의 원인을 판단하고 이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므로 의무 기록에 이학적 검사나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을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2. 치료 목적인가? (적응증의 선별)

도수치료의 적응증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급성 손상이나 수술 직후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안정기료 후 남은 강직이나 통증에 적용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차성 척추 측만증과 같이 구조적 변화가 있는 변형이나 골절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골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발생한 불균형은 도수치료로 교정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도수 치료가 처방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사에게 삭감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실비 보험의 약관에는 치료 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에 한해 지급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다. 상부관절와손 파열의 진단코드로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부관절와손 파열은 도수치료로 치유될 수 없는 병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동반된 강직이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착성 피막염은 도수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나 수개월이상 반복하여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치료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일 수 있어 장기간의 도수치료는 이 항목에 위배되어 삭감의 단초가 된다.

3.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치료의 과잉처방

일부 병원에 국한된 일이지는 하지만 도수치료와 더불어 체외충격파, DNA 주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도 타당한 방법이 아니며, 학회를 통한 자문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보험사에 유리한 예로 작용할 수 있다.

4. 치료효과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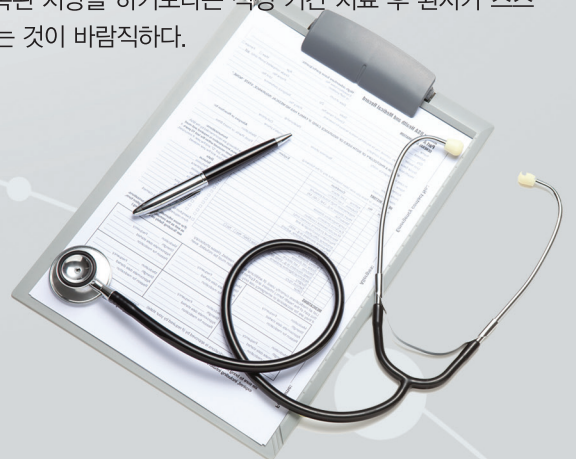
도수치료의 특성상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중간에 호전 여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며 호전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관절 각도나 통증 점수 또는 방사선학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의무 기록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가 없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치료로 전환하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반복되고 고정된 처방형태를 보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5. 장기간 치료의 지양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수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남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만성요통에 대해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최대 12주까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하였다.(헬스조선 2016.05.18). 추후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견관절 분야에서 유착성 피막염이나 수술 후 강직은 도수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응증에 해당한다. 장기간 반복된 처방을 하기보다는 적정 기간 치료 후 환자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범위로 회복된다면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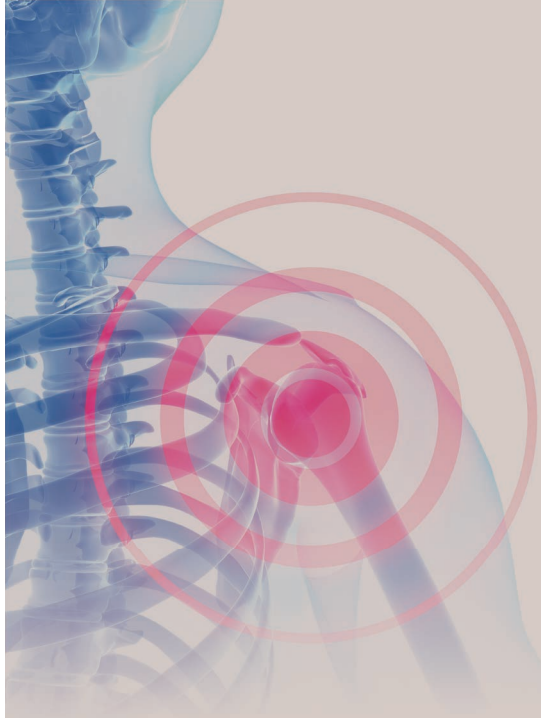
✚ 도수치료에 대한 추후 방향

학회에서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도나 횟수를 제한하게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남용하는 일부 병의원들의 행태를 제한하면서 학회 회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치료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Natural History of Rotator Cuff Tear :A Retrospective Multicenter Analysis

한림대학교 이 용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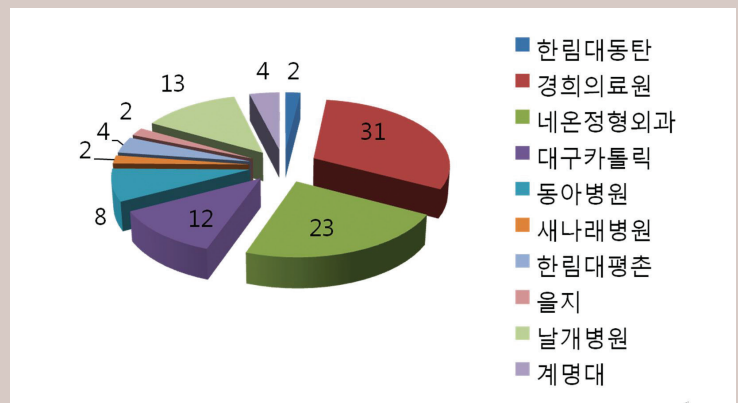
회전근개 파열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힘줄 손상이다. 회전근개의 근섬유는 장력을 받기 때문에 파열이 되는 경우에 수축에 의한 파열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전근개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수술적 치료가 많은 환자에서 통증의 경감 및 운동 범위의 향상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비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자연경과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며, 회전근개 파열로 대표 되는 회전근개 질환의 적절한 치료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소들에 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Multicenter Study

급속도로 늘고 있는 어깨 힘줄(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국내 최초로 전국 10개 병원이 참여하여 총 73명의 어깨 힘줄(회전근개)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MRI 및 임상 경과에 대하여 다기관 역학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초 어깨 힘줄(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았음에도 방치 또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환자를 대상으로 MRI oblique coronal section상 파열 크기의 변화 및 그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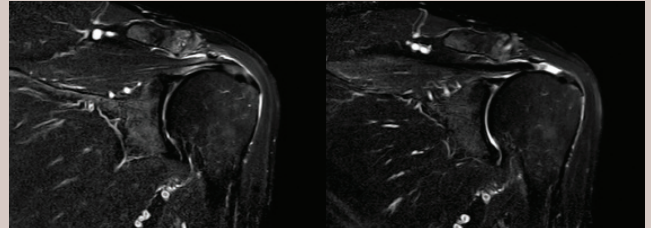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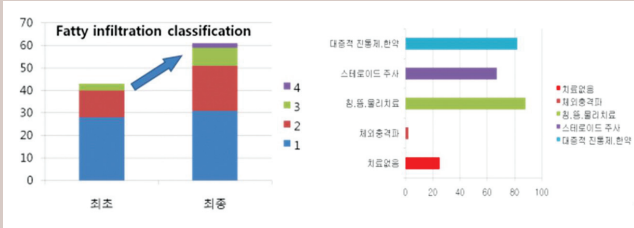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59.8세로, 34세의 젊은 환자부터 83세의 환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환자 중 51명(69.9%)은 외상의 과거력 없이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외상군(30.1%) 중 19명(26.0%)은 가벼운 외상력이 있었고 3명(4.1%)은 심하게 다친 이후에 시작된 어깨통증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다. 환자 중 육체 노동의 직업군이 27명(40.0%)였으며, 18명(24.6%)은 어깨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취미로 가지고 있었다. 최초 내원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1회 이상 맞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26명(35.6%)이었고, 그 중 3회 이상의 주사력이 있는 환자는 15명(20.5%)이었다.



Conservative Treatment

환자들은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약 6년까지 회전근개 파열의 첫 진단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받고 지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들은 평균 20.1개월 이후 증상의 악화로 다시 병원을 찾아 다시 MRI 검사를 받았다.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pain VAS score는 5.7에서 6.3으로 증가하였으며, 견관절 기능 지수(ASES score)는 44.9에서 42.4로 감소하였다. 11명이었던 초기 stiffness 환자는 최종 추시에서 5명이 더 증가하여 16명으로 늘어났으며, fatty degeneration 환자군의 수가 최종 추시에서 증가하였다.



Tear Size Development

처음 촬영한 MRI 의 oblique coronal section 에서 최대 tear size 의 평균은 10.4mm 였으나 최종 추시에서는 16.6mm로 증가하여 평균 6.2mm의 파열 크기의 증가를 보였으며, 최대 32.1mm 까지 파열 크기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성별, 노동군, 어깨 운동 여부 및 스테로이드 주사력 등에 관하여 각각의 Tear size는 전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스테로이드 주사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대하여(p value= 0.049), 또한 3회 이상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군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군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더 높았다 (p value = 0.010).



Natural History

회전근 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회전근 개 파열이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초음파와 MRI를 이용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근 개 파열은 연령이 높을 수록 그 빈도가 증가한다. 우리의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최초 내원 시 스테로이드 주사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하여 파열 크기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3회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파열 증가가 더 월등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초 내원시 회전근 개 파열이 확인된 환자군들 중에 스테로이드 치료력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특히 파열의 진행이 더 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 및 회전근 파열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중 96%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중 2명은 임상적 증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매우 심한 degenerative tear가 확인되어 arthroplasty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회전근 개 파열로 진단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일시적인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하여 다음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 생활을 지속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맺음말

우리의 연구는 증상이 있는 회전근 개 파열의 자연 경과 및 새로운 위험 인자를 확인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회전근 개 파열은 적절한 치료가 없었던 추시 기간 동안 평균 6.2mm의 파열 크기의 진행을 보였다.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의 과거력이 회전근 개 파열의 증가에 있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회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력이 있을 경우는 강력한 파열 증가 인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이런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보존적 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 학회 소식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견·주관절학회내에 여러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강좌 소식들

▶ 2015 Ulsan Shoulder Elbow Sports Symposium (USESS)

일 시 : 2015년 10월 31일 (토)

장 소 :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5층 대강당

▶ 제 13차 대한견-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일 시 : 2015년 11월 28일 (토)

장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 제 4회 Shoulder live café

일 시 : 2015년 12월 12일 (토) 13:30~17:30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데레사관 3층

▶ 제10차 경희 방콕 카데바 워크샵 (The 10th Fresh Shoulder Cadaveric Workshop in Bangkok)

Faculty : 이용걸 교수

기 간 : 2016년 2월 18일 ~ 19일

▶ Gachon Shoulder Meeting 2016

일 시 : 2016년 2월 20일 (토) 08:05~18:00

장 소 :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컨벤션 다빈치홀

▶ 제6회 어깨 관절의 날 행사

매년 3월의 마지막 주를 어깨 관절의 주 지정

어깨 관절의 날 선포 관련한 행사 3월 31일 목 개최

▶ The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2016

일 시 : 2016년 5월 18일 ~ 21일

장 소 : ICC 제주

▶ 제3회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주관절 심포지움 (KUES, Korea University Elbow Symposium)

일 시 : 2016년 5월 22일 (일) 09:00~17:00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

▶ 제4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움 (Current update in Arthroscopic surgery)

일 시 : 2016년 5월 29일 (일)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및 소강당

▶ 가톨릭대학교 Arthrex Arthroscopy Cadaver Workshop

일 시 : 2016년 6월 11일 (토)

장 소 : 가톨릭의대 임상의학 연구소 별관 3층, 응용해부학 연구소 실습실 및 강의실

▶ 15th 2016 Trauma Update : R U ready for?

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 18일 (토)

장 소 : 휘닉스 파크, 강원도 평창군

▶ 제 24차 대한건·주관절학회 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7월 9일 (토)

장 소 : 세종 컨벤션홀(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지하 2층)

▶ 제5회 Shoulder live café

일 시 : 2016년 7월 16일 (토) 13:30~17:30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관 3층 강당

▶ 2016 경희대 Shoulder Live Surgery: “어깨박엔 난 몰라~!”

일 시 : 2016년 9월 3일 (토)

장 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및 수술실

▶ 제1회 대한건·주관절학회 경상지회 심포지엄

일 시 : 2016년 9월 10일 (토) 08:30~17:50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관 3층강당

▶ 2016년 제 7차 대전·충청 건관절 Symposium

일 시 : 2016년 10월 15일 (일)

장 소 : 을지대학병원 3층 범석홀

▶ 제3회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건·주관절 심포지움 (HUSES)

일 시 : 2016년 11월 5일 (토) 09:00 ~ 18:00

장 소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본관 6층 일송홀

▶ 제 14차 대한건·주관절학회 연수강좌

일 시 : 2016년 11월 26일 (토)

장 소 : 서울 양재 AT센터 3층 세계로룸

>> 회원동정

울산의대 고상훈 교수

- Journal of acute disease, Orthopedics, World journal of orthopedics 편집위원 선정
- 의료기기 모니터링센터 소장, 스포츠의학센터 소장 발령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학술위원장, 대한관절경학회와 대한초음파학회 평의원으로 임명

서울의대 오주한 교수

-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 2016년 연례 회의에서 최우수 연구상(New Investigators Recognition Award Winner; NIRA) 수상

계명의대 조철현 교수

- 2016년 6월 유럽정형외과학회(EFORT) 제17차 학술대회 Jacques Duparc Award 수상
- “Proper site of steroid injection for the treatment of idiopathic frozen shoul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을지의대 노원 을지병원 임태강 교수

- Arthroscopy 지의 editorial board 선정

서울바른병원 이상진 원장

- 서울바른병원 개원 (영등포구 보라매역)

2016년도 신입회원 명단

974	노형래	마디병원(자택수령)	1027	정현장	분당서울대병원(자택)
975	조성일	마디병원(자택수령)	1028	김대하	분당서울대병원(자택)
976	이광열	분당서울대병원(자택수령)	1029	양석훈	분당서울대병원(자택)
977	윤석준	평촌우리병원(자택수령)	1030	강정훈	목포기독병원
978	이재근	대구의료원	1031	김재현	해운대 백병원
979	박삼국	경산중앙병원	1032	서원영	해군해양의료원
980	박상하	조선대학교병원	1033	손강민	부산본병원(자택수령)
981	정경철	부산마이크로병원	1034	최창현	강남성심병원
982	우경제	최원호병원(자택수령)	1035	허대정	천안나은병원
983	김윤기	CM충무병원	1036	이영석	서부산센텀병원(자택)
984	이우용	충남대병원	1037	주해균	신촌연세병원
985	하승주	모두병원(자택수령)	1038	이창호	국군대구병원
986	신존정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39	최준익	전남대병원
987	류지원	단국대병원 정형외과	1040	강동현	새길병원(자택)
988	배현경	마디정형외과(자택수령)	1041	김태인	신우병원(자택수령)
989	임채욱	충북대병원(자택수령)	1042	박근모	한양마취통증의학과(자택)
990	이상수	진주세란병원(자택수령)	1043	공재연	서부산센텀병원
991	김 룰	성바오로병원(자택수령)	1044	장원준	김천의료원
992	남희승	연세에스재활의학과	1045	이흥구	원주정병원(자택)
993	이상욱	아산현대병원(자택수령)	1046	김윤홍	광주유동해피부병원(자택)
994	이태진	지우병원	1047	장호진	김천의료원(자택)
995	최광민	이대목동병원(자택수령)	1048	김명진	서울웰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의원
996	김종민	창원한마음병원	1049	고영진	영남대학교병원(자택수령)
997	김석준	대구가톨릭대학병원	1050	최승균	성바오로병원(자택수령)
998	박재영	경산중앙병원(자택수령)	1051	안치영	온누리병원(자택수령)
999	이규영	참튼튼병원	1052	조영훈	한양대학교병원 (자택수령)
1000	옥현수	분당차병원(자택수령)	1053	변재철	가천의대 길병원(자택)
1001	이상명	동작경희병원(자택)	1054	박상원	성바오로병원(자택수령)
1002	배주열	동해한마음병원(자택)	1055	전윤상	이대목동병원(자택)
1003	김병수	동탄성심병원(자택)	1056	김동환	충북대병원(자택수령)
1004	양 효	서울성모병원(자택수령)	1057	최종원	순천향의대 천안병원
1005	이원구	논산백제병원	1058	기영문	경희의료원(자택수령)
1006	이형준	서울아산병원(자택수령)	1059	전재범	CM종합병원(자택수령)
1007	이성민	분당서울대병원(자택수령)	1060	김재우	CM충무병원
1008	김태욱	남양주21세기병원(자택수령)	1061	이호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009	이주엽	이대목동병원	1062	최종민	CM충무병원(자택수령)
1010	정철희	화인서울정형외과	1063	문동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자택수령)
1011	김창희	동국대 일산병원(자택)	1064	한순철	대전 김경천 탄탄정형외과
1012	이태훈	부산대학교병원(자택)	1065	김정훈	고대구로병원(자택수령요)
1013	조우인	부천 순천향대학교병원(자택)	1066	김환진	경희의료원(자택수령)
1014	배규환	원광대학교병원	1067	민슬기	삼성서울병원(자택수령요)
1015	김만영	나누리병원(자택수령)	1068	방재현	삼성서울병원
1016	조대연	서울부민병원(자택수령)	1069	김성민	서울순천향병원
1017	서규범	제주대학교병원	1070	민영경	부산백병원(자택)
1018	박기태	나은병원(자택수령)	1071	허정규	김형근 예병원
1019	정구황	바른세상병원(자택수령요)	1072	이규조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1020	안성환	진주 복음병원(자택수령)	1073	박주상	대전 세우리병원
1021	김정욱	은평참튼튼병원(자택)	1074	변주환	성바오로병원
1022	정주영	예손병원(자택)	1075	이정현	포항세명기독병원
1023	엄윤식	대구의료원	1076	박장수	죽전예스병원
1024	조인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077	신규식	대구 척척병원
1025	김태원	가천의대 길병원(자택)	1078	김지훈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1026	장재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Rotator Cuff repair using the **fixone**[®] PLGA + β -TCP Anchor System

fixone[®] Anchor B

- Screw in type (Medial row)



fixone[®] Anchor K

- All biocomposite knotless anchor (Lateral row)



JOINIX[®]

- Disposable Cannula
Rigid, transparent, disposable cannulae

